

駱賓王賦研究*

白承錫**

<目次>

I. 前言	1. 主題의 변화: “倡婦怨”에서 “鳴戰鼓”로
II. 駱賓王의 생애	2. 억울함의 표현: “蟬”과 “螢”
III. 作品分析	IV. 結語

I. 前言

賦는 운문과 산문의 특징을 모두 갖고 있는 고대 중국문학의 한 문체로써, 그 형태는 세계 어느 문학사에서도 찾기 어려운 특이한 것이다. 이 賦文學은 先秦時代 屈原의 楚辭에서 시작하여, 漢代에 이르러 그 형식과 내용이 완성되어 흥성하였고 마침내는 漢代를 대표하는 문학이 되었다. 이 시기에 賦가 발달한 주요 원인은 당시 王室 및 貴族들의 愛好와 적극적인 獎勵가 있었기 때문으로, 《漢書·藝文志》에 의하면 武帝와 宣帝 무렵에 皇帝에게 헌납된 賦 작품이 천여 편에 달했다고 한다. 漢代에 宮廷과 귀족을 중심으로 유행하였던 賦문학은 魏晉南北朝 시기로 내려오면서 당시 聲律의 운용에 치중하는 唯美主義 문학사조의 영향으로 賦 작품들도 駢儷化되었다. 아울러 개인적인 抒情과 詠物 작품들도 많이 출현하여 형식과 내용적인 측면에서 漢代와는 다른 새로운 風格의 창조가 이루어졌다고 할

* 이 논문은 동국대학교 교원해외연수 지원에 의해서 이루어짐.

** 동국대학교 중어중문학과 교수

수 있다.

賦는 唐代에 이르러서 또 다시 흥성하게 되는데, 이는 唐太宗과 高宗의 적극적인 장려로 말미암은 것으로 朝廷에서부터 민간에 이르기까지 매우 많은 賦 작가들이 출현하여 賦 창작에 새로운 정점을 이루게 되었다. 그러나 唐代는 漢代 賦 작가들의 신분과는 다소 차이가 있는데, 皇室 중심의 宮廷 文人들뿐 만아니라 일반 市井의 문인들도 많은 작품들을 창작하였다. “初唐四傑”에서부터 李白·杜甫·白居易·韓愈·杜牧·李商隱 등 唐代의 저명한 詩人에 이르기까지 모두 賦 작품을 전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후세의 몇몇 文學史家들은 唐賦를 부정하여 “당에는 부가 없다(唐無賦)”거나, 혹은 “부는 당에서 망했다(賦亡於唐)”는 견해를 주장하기도 하였다.¹⁾ 이같이 唐詩를 중시하고 唐賦를 경시하는 부정적인 평가와 인식은 피상적이고 단면적인 것으로, 마땅히 唐賦에 대한 새로운 탐색을 통하여 적당한 가치를 부여해야만 한다. 이를 위한 새로운 탐색과 평가는 初唐 시기의 辭賦 작품에서 시작해야 하는데, 특히 유미주의 문학을 반대하고 아울러 새로운 風骨을 주장한 “四傑”, 즉 王勃·楊炯·盧照鄰·駱賓王의 賦 작품이 관건이다. 여기에선 “四傑”중에서 먼저 駱賓王과 그의 작품을 중점적으로 고찰해 보고자 한다. 이런 고찰을 통하여 민간에서 활동한 駱賓王의 작품은 당시 宮廷을 중심으로 활동한 賦 작가들의 작품과는 어떤 차이가 있으며, 또한 개인의 情感을 잘 표현한 魏晉南北朝의 辭賦와는 어떤 계승과 혁신이 있었는지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탐색을 통하여 唐賦에 대한 문학사적인 평가가 보다 객관적이고 공정한 틀 안에서 이루어지게 되는 초석을 놓고자 하는 것이다.

1) “唐無賦”라는 견해는 明 李夢陽이 <潛州山人記>에서, “賦亡於唐”이라는 견해는 淸 程廷祚가 <騷賦論>에서 주장하였다. 馬積高 <<賦史>>, 252쪽 참조.

II. 駱賓王之 생애

駱賓王은 字가 觀光이고²⁾, 婺州 義烏(현재 浙江省 義烏縣)사람으로, “四傑” 중에서 전설적인 색채가 가장 강한 인물이다. 그의 生卒年에 관해서는 史書에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후대에 많은 사람들이 서로 다른 의견을 제시하고 있는데, 任國緒는 《初唐四傑詩選》에서 生卒年을 “622~684”³⁾, 游國恩은 《中國文學史》에서 “640?~684”⁴⁾이라고 주장하는 것처럼, 그 生年에 대한 격차가 18년이나 된다. 낙빈왕의 출생 연도에 관한 것은 그의 詩文을 통해서 추정해볼 수 있다. 그의 詩 <詠懷古意上裴侍郎>중에서: “32세 남짓에 관직에서 해임되니 일생 불우했던 반악의 백발이 시작된 나이네.(三十二餘罷, 鬢是潘安仁)”라고 하였는데, 陳熙晉의 考證에 의하면 駱賓王이 관직에서 물러나 裴行儉에게 詩를 올려 서역으로 종군하기를 청할 때가 高宗 咸亨 初年, 서기 670年이다.⁵⁾ 이때 그의 나이를 32세로 보고 계산해보면 서기 638年, 太宗 貞觀 12年에 낙빈왕이 출생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⁶⁾

그의 卒年은 먼저 《舊唐書·駱賓王傳》의 “敬業敗, 伏誅”라는 기록에 의하면 비교적 간단하게 결론을 내릴 수 있다. 徐敬業이 光宅 元年(서기 684년) 9월에 揚州에서 起兵하여 武則天에게 반기를 들었다가, 11월에 패하여 피살되었는데, 만일 낙빈왕도 함께 “사형에 처해지다(伏誅)”라고 한다면 그의 卒年은 光宅 元年(서기 684년)이라고 간단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新唐書·駱賓王傳》에서: “서경업이 패하자 낙빈왕은 망명을 하였지만 간 곳을 알지 못한다.(敬業敗, 賓王亡命, 不知所之)”라고 한

2) 新·舊 《唐書·駱賓王傳》에는 모두 그의 字가 기록되어 있지 않다. 그의 字는 《義烏縣志》에 의거하였다. 《駱臨海集箋注》附錄, 387쪽에 수록되어 있는 陳熙晉의 <續補唐書駱侍御傳>참조.

3) 任國緒, 《初唐四傑詩選》, 152쪽.

4) 游國恩主編, 《中國文學史》第二冊, 31쪽.

5) 陳熙晉箋注, 《駱臨海集箋注》, 110쪽에 보임.

6) 馬積高 역시 이 說을 견지하였다. 《賦史》 264쪽.

것을 보면, 그의 졸년이 언제인지 명확하게 단정하기 어려워진다. 후에 孟 棨의 《本事詩·徵異》에서 말하기를: “낙빈왕 역시 머리를 깎고 출가하여, 명산을 두루 다니다가 영은사에 이르렀고 그 다음해에 사망하였다.(賓王亦落髮, 徧遊名山, 至靈隱, 以周歲卒)”라고 하여 낙빈왕이 거사에 실패하여 망명한 후에 승려가 되어 떠돌다 杭州의 靈隱寺에서 죽었다는 것이다.⁷⁾ 그러나 이는 소문일 뿐으로 고증할 만한 근거는 없다. 따라서 신증을 기하기 위하여 舊傳의 견해를 따른다면, 駱賓王은 太宗 貞觀 12年(638)에 태어나서 武后 光宅 元年(684?)에 사망하여 대략 46세 혹은 그 이상을 생존했다고 할 수 있겠다.

駱賓王은 “四傑”중에서 가장 가난하고 보잘 것 없는 출신으로 그 자신도 줄곧 “江東布衣”라고 自稱하였다.(〈自敘狀〉) 그의 선조 중에는 높은 관직이나 지위에 오른 사람이 없었던 것 같다. 그의 부친도 다만 博昌(현재 山東 博興縣)의 縣令을 지냈을 뿐이었다.⁸⁾ 그는 어려서부터 모친을 따라서 義烏 북쪽의 한 마을에서 생활하였는데, 총명하고 배우기 좋아했던 낙빈왕은 7세 무렵에 詩文을 지을 수 있었다. 胡應麟의 〈補唐書駱侍御傳〉에 의하면 이때에 낙빈왕이 〈詠鵝〉를 지었다고 한다. 이 시로 말미암아 그의 천재적인 명성이 향리에 퍼지게 되었고 신동이라는 찬사를 듣게 되었다.⁹⁾ 낙빈왕이 10여세 때에 부친을 따라서 임지인 博昌縣으로 이주하였는데, 博昌은 孔孟의 고향(曲阜와 鄒縣)에 인접해 있어서 줄곧 학풍이 진작되었던 곳이다. 낙빈왕은 부친의 관계에 힘입어 博昌의 유명한 학자들에게 사사하였으며 스스로의 노력과 많은 독서를 통하여 깊은 학식을 갖게 되는 등, 학문에도 커다란 발전이 있게 되었다. 낙빈왕은 〈上瑕丘韋明府啓〉에서 이 시기의 배움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묘사하고 있다.

7) 陳熙晉箋注, 위의 책 400쪽, 附錄에 보임.

8) 駱賓王의 〈與博昌父老書〉에: “과거 나의 부친은 일찍이 博昌 縣令을 역임하였는데, 덕행이 고결하여 비록 세상을 떠나신지 오래되었지만 부친이 후인에게 남긴 두터운 사랑은 아직도 남아있다(昔吾先君, 出宰斯邑, 清芬雖遠, 遺愛猶存).”

9) 胡應麟, 〈補唐書駱侍御傳〉에 보임. 陳熙晉箋注, 위의 책 382쪽, 附錄 참조.

寓迹雩壇, 挹危直之秘說; 託根磬渚, 戢戰勝之良圖. 幸以奉訓趨庭, 束情田於理窟; 從師負笈, 私默識於書林. (몸은 孔子가 강의했다는 杏壇 즉 士林에 의탁하여, 말과 행동을 고상하고 정직하게 하는 비책의 이론을 받아들입니다. 몸을 갈고 닦는 숫돌에 의탁하여, 과거시험에 급제하는 좋은 계획을 취합니다. 다행스럽게 저는 부친의 엄한 가르침을 받아 행할 수 있었고, 이치가 깊은 곳에서 人情에 얽매었습니다. 밖으로 나아가 배움을 구하여 스승을 따랐고, 가만히 書林 속에서 암기하고 잊지 않았습니다.)

대략 낙빈왕의 나이 20세를 전후해서 불행하게도 그의 부친이 사망하였는데, 그는 모친을 모시고 兗州 瑕丘縣(현재의 山東 兗州市)으로 이주하여 곤궁한 생활을 하게 된다. 여기에서 駱賓王은 宋之問을 만나 우의를 돈독히 하였다. 이때에 지은 것으로 <在兗州餞宋五之間>·<送宋五之間> 등의 시가 있다. 낙빈왕이 벼슬길에 나선 것은 龍朔 元年(661)으로 23세 때에 道王 李元慶의 府屬이 되었는데 이는 文書를 다루는 일이었다. 낙빈왕은 별로 할 일이 없는 이 道王 府屬의 삶에 대하여 몹시 불만이였다. 그의 <自敘狀>을 보면:

然而進不能談社稷之務, 立事襄中; 退不能掃丞相之門, 買名天下. (그러나 내가 관직에 나아와도 국가대사를 담론하여, 천하에서 대업을 성취할 수 없고, 물러나도 승상 집 문을 쓸어서, 천하에서 명예를 살 수 없습니다.)

3년 후에 스스로 道王府를 떠나 長安과 洛陽 일대를 떠돌며 博徒(노름꾼)들과 어울려 지내면서 음주 방종의 자유스러운 생활을 보냈다. 《舊唐書》本傳에: “방탕하고 품행이 단정치 못하여, 노름꾼들과 어울려 지내기를 좋아하였다.(然落魄無行, 好與博徒遊)”라는 것이 바로 이 시기를 가리킨다.

麟德 2年(665)에 낙빈왕은 또 太常伯 劉祥道에게 상서를 올려서 자신의 정치적인 견해와 포부를 진술하고 아울러 자신을 천거해주기를 희망하였다. 그의 <上司列太常伯啓>에.

某蓬廬布衣, 桑樞韋帶. 自弱齡植操, 本謝聲名; 中年誓心, 不期聞達. 上則執鞭爲士, 王庭希干祿之榮; 次則擢檄入官, 私室庶代耕之祿. (저는 본디 草野의 평민으로, 뽕나무문 집에 가죽 띠를 매는 빈천한 사람이었습니다. 어려서부터 포부와 지조를 세우고 명성을 추구하지 않았습니다. 중년이 되어서는 굳게 결심하여, 입신출세만을 추구하지 않았습니다. 제일 좋은 것은 채찍으로 수레 몰아 관직에 나아가, 조정을 위해서 일하는 祿位의 영예를 얻는 것이고, 그 다음은 격문을 받들어 관직에 들어가, 가정을 부양하는 代耕의 작위를 얻는 것입니다.)

이에 낙빈왕은 劉祥道의 눈에 들었으며, 후에 다시 조정에 들어가고자 <對策文三道>를 지었는데, 신중하고 치밀한 立論 그리고 화려한 文詞의 이 문장으로 결국 奉禮郎에 임명될 수 있었다. 그리고 오래지 않아서 또 다시 東臺詳正學士가 되어 국가의 도서 전적을 책임지고 교감 정리하였다. 낙빈왕은 이곳에서 4~5년을 지냈는데, 그의 도도하고 강직한 성격 때문에 직책에 더 이상 머물지 못하고 물러나게 된다. 이 무렵에 吐蕃이 서부 변경을 침범하자, 조정에서는 薛仁貴에게 군대를 인솔하여 공격하라는 명을 내렸다. 이러한 소식을 들은 낙빈왕은 즉각 吏部侍郎 裴行儉에게 上書하여 “삶에 집착하지 않고 항상 비분강개하며,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직 빈틈없이 충성할 뿐이다.(輕生長慷慨, 效死獨慙慙)”(<詠懷古意上裴侍郎>)라고 서역으로 종군하겠다는 결심을 밝힌다. 이 해 가을에 그는 薛仁貴의 大軍을 따라서 甘肅·青海·新疆 일대를 돌며 전투에 참가한다. 힘들고 고통스런 군대 생활과 서북 변방지역의 광활하고 쓸쓸한 풍광은 낙빈왕에게 문학적인 영감을 주어 열정적으로 창작에 몰두하게 하였다. 그의 <蕩子從軍賦>와 <從軍行>·<王昭君>·<邊庭落日>·<晚度天山有懷京邑>·<軍中行路同辛常伯作>등 변방의 생활과 풍광을 묘사한 유명한 詩歌들은 모두 이 시기에 지어진 것이다.

咸亨 2年(671), 설인귀의 군대가 大非川(현재 青海湖 일대)에서 패하게 됨으로써, 변방에서 공을 세우려는 낙빈왕의 이상도 따라서 무너졌다. 그 후에 그는 서역을 떠나서 蜀 지방으로 왔고, 益州에서 왕발과 노조린을

알게 되었다. 그들은 서로 절친한 친구가 되어 함께 “尋姝入酒肆, 訪客上琴台. 不識金貂重, 偏惜玉山頹(미녀를 찾아 주점으로 들어가니, 거문고 소리 들리는 누대로 손님을 모시네. 고관의 화려한 모자 장식 귀한 줄 모르고, 단지 술 취해 시 짓는 게 좋으니 몸은 비틀 비틀 가눌 수 없어라)” (<疇昔篇>)라며 낭만적인 생활을 하였다. 그는 또한 盧照隣의 情婦인 郭氏를 위하여 유명한 歌行 <艷情代郭氏贈盧照隣> 한 편을 지어서 初唐時期 문단에 멋진 풍류를 남기기도 했다.

咸亨 3年(672) 봄에, 姚州(현재 雲南 姚安)에서 변란이 발생하여 조정에서는 梁積壽에게 명하여 군대를 이끌고 가서 토벌하도록 하였다. 駱賓王은 또 다시 군대를 따라서 요주로 종군하여, 軍中の 幕府에서 중요한 문서를 관장하였다. 七言古詩 <從軍中行路難>는 姚州의 軍中에서 창작된 것이다.

姚州의 변란이 평정된 후에, 駱賓王은 蜀을 거쳐 長安으로 돌아와 上元 3年(674)에 武功縣(현재 陝西 武功) 主簿의 관직을 받는다. 후에 明堂縣 主簿로 전근하게 되는데, 이 시기에 “當時의 絕唱”(《舊唐書》本傳)이라는 長篇 歌行 <帝京篇>을 창작하였다. 儀鳳 3年(678)에 長安 主簿로 옮겼다가 얼마 후 侍御史로 발탁되어 승진한다. 바로 이해 겨울에 그는 억울하게 투옥된다. 감옥에서 비분과 억울함을 가슴에 품고 그는 <螢火賦>를 비롯하여 <在獄詠蟬><選出紫寒夜有懷><獄中書情通簡知己> 등을 창작했다. 出獄한 후에는 <疇昔篇>을 지어 감옥 안에서의 고통스런 생활을 묘사하였다.¹⁰⁾

調露 2年(680) 봄에, 그는 臨海(현재 浙江 天臺) 縣丞에 임명되었으나, 낙빈왕은 곧바로 임지로 가지 않고 먼저, 모친을 안장하기 위하여 자신의 고향인 義烏로 돌아가면서, 도중에 낙빈왕은 <靈泉頌>을 창작하였다. 臨

10) “鄒衍銜悲繫燕獄, 李斯抱怨拘秦桎. 不應白髮軟成絲, 直爲黃沙暗如漆(추연은 슬픔을 머금고 연나라 감옥에 들어갔고, 이사는 원망을 품고 진나라 형틀에 묶였네. 머리는 마땅히 비단실처럼 하얗게 세지 않을 것이니, 황사로 칠흑처럼 어둡기 때문이네)”

海丞의 자리에 올랐던 낙빈왕은 2년이 못되어 결국 “뜻을 얻지 못함에 화가 나서 관을 버리고 떠나다.(怏怏不得志, 棄官去)”(《新唐書》本傳)하게 된다. 이 이후로 그는 철저하게 관직의 세계와는 이별하게 되니 그 때가 永淳 元年(682) 초여름이었다.

睿宗 文明 元年(684) 가을에, 駱賓王은 揚州에서 徐敬業이 武則天을 반대하는 거사에 동참했다. 軍中の 藝文令이 된 그는 유명한 <代徐敬業傳檄天下文>(〈討武墨檄〉라고도 함)을 기초하였으며, 아울러 시 <在軍登城樓>도 지어 “戎衣何日定, 歌舞入長安.(군복을 걸친 토벌은 언제 승리하려나, 노래하고 춤추며 장안성에 들어가리)”라고 樂觀적인 情緒를 묘사하였다. 그러나 徐敬業은 3개월이 못되어 붕괴되고 말았으며 駱賓王도 이후로 실종이 되어서 被殺 혹은 投江하였다고 하기도 하고, 또는 亡命 혹은 出家하여 승려가 되었다고도 한다.¹¹⁾

III. 作品分析

駱賓王의 文集十卷이 현존하고 있는데, 淸 陳熙晉의 《駱臨海集箋注》가 가장 완벽한 판본이다.¹²⁾ 문체와 창작의 연도별로 편집하였는데, 먼저 詩歌(五卷), 賦頌(一卷), 다음은 表·啓·書·序等(四卷)의 순서로 되어있다. 詩歌는 모두 120여首, 賦頌은 3篇, 表·啓等 雜文 38篇이 있다. 그의 부 작품은 <螢火賦>·<蕩子從軍賦> 및 <靈泉頌>등 3편으로 “四傑”중에서 편수는 제일 적으나 賦 文學史에서 홀대할 수 없는 위치에 있다. 특히

11) 駱賓王의 최후에 대하여 4가지 견해가 있다: 첫째는 兵敗하여 被殺되었다는 것으로 《舊唐書》本傳에 보인다; 둘째는 投水하여 죽었다는 것으로, 張(旅鳥)의 《朝野僉載》권1에 보인다; 셋째는 亡命하여 어디로 갔는지 모른다는 것으로, 《新唐書》本傳에 보인다; 넷째는 출가하여 승려가 되었다는 것으로 孟棻 <本事詩·徵異>에 보인다.

12) 현재 출판 된 것으로는 1984年の 上海古籍出版社 重印本이 있고, 臺灣 世界書局과 香港 中華書局에서도 역시 출판한 것이 있다. 그러나 香港 中華書局 출판본에는 附錄이 없다.

<蕩子從軍賦>는 六朝의 遺風을 이어서 새로운 唐賦의 風格을 개척한 작품이다. 馬積高는 “현존하는 부 가운데서 변방의 정벌 전쟁 생활을 묘사한 최초의 성공작이다.(是現存賦中第一篇描繪邊塞征戰生活的成功之作)”¹³⁾라고 평하였다. 또한 감옥 속에서 지은 <螢火賦>는 반딧불을 보고 솟아난 감정을 읊은 것으로 새로운 형식을 창조하였다. 이제 그의 작품을 구체적으로 분석하고 그것을 토대로 하여 辭賦의 문학사적인 지위에 대한 이제까지의 평가를 재검토하고자 한다.

1. 主題의 변화: “倡婦怨”에서 “鳴戰鼓”로

駱賓王의 <蕩子從軍賦>는 咸亨 元年(670)에 薛仁貴를 따라서 西域으로 종군할 때 지은 작품이다. 陳熙晉이 말하기를: “낙빈왕은 오랫동안 변방을 지키며 돌아오지 못하고 <蕩子從軍賦>를 지어 자신의 뜻을 나타내었다.(賓王久戍未歸, 作<蕩子從軍賦>以見意)”¹⁴⁾라고 하였다. 許東海<<庾信生平及其賦之研究>>중에서: “낙빈왕의 이 작품은 분명히 유신의 <蕩子賦>를 모방하여 지은 것으로 곳곳에 그 같은 흔적이 확연히 보인다.(駱賓王這篇作品, 應該是模擬庾信的<蕩子賦>而作, 其間痕迹顯然可見)”¹⁵⁾라고 지적하였다. 이 견해는 근거가 있는 것이긴 하지만 덧붙여야 할 것은 駱賓王의 <蕩子從軍賦>와 庾信의 <蕩子賦>는 내용은 물론 형식적으로도 중대한 변화와 발전이 있었다는 점이다. 南朝에서 만들어진 “宮體”의 풍조가 성행하던 배경 속에서 창작된 유신의 <蕩子賦>는, 다른 南朝 文人들 작품처럼 여성 形象을 묘사의 중심으로 하였다. 다만 <蕩子賦>는 여성의 외적 服飾과 치장에 대한 지나친 의도적 꾸밈이나 수식을 피하고, 여성의 내재적인 심리를 형용하는데 치중하였다.

13) 馬積高, 위의 책, 266쪽.

14) 胡應麟, <續補唐書駱侍御傳>. 陳熙晉箋注, 위의 책 389쪽, 附錄 참조.

15) 許東海, <<庾信生平及其賦之研究>>, 93쪽.

況復空牀起怨,	게다가 쓸쓸한 빈 침대에서 원망이 일어남은
倡婦生離.	이내몸 우리 님과 생이별 때문이네.
紗窓獨掩,	망사의 창문은 닫혀 있고,
羅帳長垂.	비단 장막은 언제나 늘어져 있네.
新箏不弄,	가야금 타지 않고
長笛羞吹.	피리도 불지 않음은 우리 님 안 계셔 허전함 때문이네.
常年桂苑,	왕년의 정원에는 계화나무 화려했고,
昔日蘭閨.	이전 규방에는 난초로 향기로웠지.
羅敷總發,	나무같이 아름다운 이내몸 머리 틀어 올리고
弄玉初笄.	농옥같이 다재다능한 이내몸 비너를 꽃았었지.
新歌<子夜>,	처음에는 함께 노래도 불렀었고,
舊舞<前溪>.	이어서 같이 춤도 추었었지.
別後關情無復情,	이별 후 서로 아껴주고픈 마음 있어도 다시 그 마음 쓸 곳 없고
奩前明鏡不須明.	경대 앞에 맑은 거울 있어도 화장할 마음 없어 닦을 필 요 없어라.
合歡無信寄,	정을 나눴던 낭군님은 보내온 소식 없고,
迴紋織未成.	낭군님께 보내는 마음의 편지는 아직 완성되지 않았어라.
游塵滿牀不用拂,	떠다니는 먼지 침대에 떨쳐 버릴 필요 없고,
細草橫階隨意生.	작은 잡초 계단에 그냥 자라게 내버려 두어라.

이것이 바로 <蕩子賦>의 주요 내용으로, 倡婦의 蕩子에 대한 閨怨의 情을 표현한 것이다. 이 주된 내용은 작품이 시작하는 첫 단락인 4句 “蕩子辛苦逐征行, 直守長城千里城. 隴水恒冰合, 關月唯月明(멀리 고향을 떠나 돌아올 줄 모르는 우리 님, 힘들게 군대를 좇아서 지나긴 장성을 지키러 가셨지요. 언제나 얼음 얼어있는 변방 물가에서 추위에 떨며 변방의 밝은 달만 벗삼아 지내시겠지)”에 이어지는데, 蕩子를 묘사한 이 첫 단락의 4句는 다음에 이어지는 이 작품의 주된 내용을 드러나게 한 것으로 “倡婦怨”을 이끌어내기 위함이었을 뿐이다. 庾信은 從軍의 經歷을 갖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蕩子が 出征하는 구체적이고 실재적인 내용을 묘사해낼 수 없었던 것이다. 그러나 駱賓王의 <蕩子從軍賦>는 다르다. 馬積高에

의하면.

유신의 <蕩子賦>는 思婦의 각도에 치중하여 묘사한 것으로 蕩子를 그린 것은 4구만 있을 뿐이다. 이 부는 蕩子 쪽이 더욱 상세한데 묘사 또한 씩씩하고 생기발랄하여, 현존하는 부 가운데서 변방의 정벌 전쟁 생활을 묘사한 최초의 성공작이다. (庾信的<蕩子賦>, 是着重從思婦的角度寫的, 寫蕩子僅四句. 此賦則以蕩子一方尤詳, 也寫得虎虎有神, 是現存賦中第一篇描繪邊塞征戰生活的成功之作.)¹⁶⁾

유신의 賦와 낙빈왕의 賦가 이같이 서로 다르게 표현된 가장 주요한 이유는 駱賓王은 從軍生活의 실제적인 체험과 느낌이 있었기 때문으로, 陳熙晉이 말한 것과 같다.

낙빈왕은 젊었을 때 용감하고 의협심이 강하여, 오랫동안 변방을 지켰는데, 비분강개하여 직접 종군하면서도 궁궐을 그리워하였다. 유신의 부체를 빌어서 서역에서 공을 세웠던 班超의 豪壯한 胸懷를 펼쳐놓았다. 지극히 먼 변방지역의 봉화 연기와 전쟁터 먼지, 지아비 없는 쓸쓸한 빈 방의 바람과 달 등의 묘사는, 비록 문사는 곱고 아름다운 형식에 의탁했지만, 그 내용은 《시경》《초사》에 부합한다. (臨海夙齡英俠, 久戍邊城, 慷慨臨戎, 徘徊戀關. 借子山之賦體, 攄定遠之壯懷, 絕塞烟塵, 空閨風月, 雖文託艷冶, 而義協風騷.)¹⁷⁾

따라서 賦의 中心은 “隱隱地中鳴戰鼓”, 즉 蕩子 從軍의 고초와 전쟁터에서의 분투하는 격렬한 내용에 있다. 이같이 “倡婦怨”에서 “鳴戰鼓”로의 내용적인 변화는 唐 초기 강성한 국가의 세력과 지식인들이 국경 변방에서 공을 세우려는 시대적 배경에 부합하는 것이다. 賦의 시작은 먼저 大軍 出征의 위엄과 기세를 묘사하였다.

16) 馬積高, 위의 책, 265-266쪽.

17) 陳熙晉箋注, 위의 책 193쪽.

胡兵十萬起妖氛, 오랑캐 10만의 병사가 변방을 침범하여 어수선 하니
 漢騎三千掃陣雲, 중원의 3천 기병이 구름 같은 적진을 휘젓네.
 隱隱地中鳴戰鼓, 진군의 굉장한 북소리 대지에 울려 퍼지고,
 迢迢天上出將軍, 용맹스런 무적 장군 하늘에서 내려오네.
 邊沙遠雜風塵氣, 변방 끝없는 사막엔 바람 먼지 뒤섞여 있고
 塞草長垂霜露文, 변방 시들은 풀은 이슬 서리에 꽃무늬를 그리네.

이어서 蕩子 중군의 고초와 전투의 격렬함을 구체적으로 鋪寫하였다.

蕩子辛苦十年行, 당자는 힘든 10년의 행군을 겪어
 回首關山萬里情, 뒤돌아 험했던 관문과 산천들 보니 먼 곳 그리움이네.
 遠天橫劒氣, 갈 기운은 아득한 하늘 끝까지 드리워져 있고,
 邊地聚笳聲, 갈잎 피리소린 변방에 가득하네.
 鐵騎朝常驚, 한낮 척후병 鐵騎는 경비를 담당하고,
 銅焦夜不鳴, 한밤 경보용의 술은 울리지 않네.
 抗左賢而列陣, 흉노 單于의 左賢王에 대항하여 진용을 배열하고,
 屯右校以疏營, 흉노 右校王에 맞서 병영의 간격을 넓히네.
 滄積凍連蒲海, 창파는 얼어붙어 蒲類海에 이어지고,
 白雲凝寒徧柳城, 백운은 찬바람 되어 柳城에 퍼져있네.
 若乃地分玄徼, 변방은 북쪽 지역에 위치하고
 路指靑波, 도로는 변방 밖으로 靑波를 향하네.
 邊城暖氣從來少, 邊城에는 따스한 기운이 지금까지 부족했으며,
 關塞寒雲本自多, 關塞에는 차가운 구름이 저절로 넘쳤어라.
 嚴風凜凜將軍樹, 찬바람 속에 우뚝 솟은 위풍당당한 將軍樹 있고,
 苦霧蒼蒼太史河, 짙은 안개 속에 드러난 검푸른 太史河 있네.
 旣拔距而從軍, 용사는 힘차게 뛰어들어 종군하고,
 亦揭麾而挑戰, 전사는 깃발을 휘날리며 도전하네.
 征旆凌沙漠, 정벌의 깃발은 사막을 압박하고,
 戎衣犯霜霰, 갑옷은 서리 눈발을 물리치네.
 樓船一舉爭沸騰, 전함이 움직이자 파도가 물결치고,
 烽火四連相隱見, 봉화가 사방으로 이어져 숨었다가 나타난다.
 戈文耿耿懸落星, 온갖 창칼들이 부딪쳐 하늘에 걸린 별처럼 반짝이고,

馬足駸駸擁飛電, 전투 말들은 휘날리는 번개처럼 이리저리 내달리네.
 終取僞而先鳴, 마침내 승리하여 대단한 기세로 적을 먼저 제압하고,
 豈論功而後殿. 논공행상에 어찌 사람들을 가장 뒤로 할 수 있는가.

황량하고 적막한 자연환경, 격렬한 전쟁 분위기와 전투 속에서 복잡하게 변하는 병사들의 내적인 세계가 하나로 어우러져 全篇에 걸쳐 그 웅장함이 잘 드러나 있다. 이러한 기법은 직접 그런 경우에 처하지 않았던 사람은 묘사하기 어려운 것으로 이것은 庾信의 <蕩子賦>와 비교될 수 없는 면이다. 辭賦 중에서 변방 정벌 전쟁의 생활을 구체적이면서도 성공적으로 표현한 작품은 駱賓王의 것이 처음이다. 이같이 비장하고 심금을 울리는 장면은 후에 盛唐 시기 高適의 <燕歌行>, 岑參의 <輪臺歌奉送封大夫出師西征>·<白雪歌送武判官歸京> 등과 같은 유명한 邊塞詩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재현되었다. 즉 낙빈왕이 이러한 邊塞詩들의 선구자임을 알 수 있는 것이다.

다음은 이 賦의 후반부로서 征人에 대한 倡婦의 그리움과 슬픔을 그리고 있다.

征夫行樂踐榆溪, 정벌간 蕩子는 <從軍行>을 부르며 榆溪에 이르고,
 倡婦銜怨守空閨. 남겨진 倡婦는 가슴에 슬픔 가득 안고 홀로 빈집 지키네.
 藤蕪舊曲終難贈, <藤蕪> 옛 노래 속에서 말한 '故夫'에게 끝내 드리기가 어렵고,
 芍藥新詩豈易題 <芍藥> 새 시가 속에 그린 恩情을 제목으로 삼기 어렵네.
 池前怯對鴛鴦伴, 연못가에선 원앙새 짝지어 노는 모습 마주하기 두렵고,
 庭際羞看桃李蹊, 마당 사이에선 복사꽃 구경하는 못사람들 바라보기 부끄럽네.
 花有情而獨笑, 꽃은 정이 있어 홀로 웃는 얼굴 활짝 피고,
 鳥無事而恒啼. 새는 별일 없어도 항상 노래 불러 젖히네.
 見空陌之草積, 적막한 길가엔 잡초 가득 자란 것만 보이고,
 知闌闔之塵栖. 어두운 창가엔 먼지만 뽕양게 앉아 있는 것 알겠네.
 蕩子別來年月久, 蕩子는 한 번 떠난 뒤에 길고 긴 세월 흐르고,

賤妾空房更難守. 倡婦는 텅 빈 규방을 홀로 지새우기 어려워라.
 鳳凰樓上罷吹簫, 임 떠나 버렸으니 봉황루 위에선 다시 피리 불지 마시고,
 鸚鵡杯中休勸酒. 애간장 속 술 가득하니 앵무잔으로 더 이상 권하지 마
 세요.
 聞道書來一雁飛, 듣기에 임 소식 편지 올 땐 기러기 높게 난다고 하는데,
 此時緘怨下鳴機. 이때는 더 이상 원망의 말 하지 않고 베틀에서 내려오
 리라.
 裁鴛貼夜被, 재빨리 원앙 이불 마름질 하고,
 薰麝染春衣. 얼른 봄 옷 사향 향기로 향내 입히리.
 屏風宛轉蓮花帳, 아늑한 병풍에 연화 꽃무늬 휘장을 두르고,
 牕月玲瓏翡翠幃. 휘영청 창가에 비취 깃털 장식 장막을 비치리라.
 箇日新粧始復罷, 이 날은 새로 단장하고 옷을 입었다가는 다시 벗고서,
 祗應含笑待君歸. 마땅히 웃음 가득 머금고 임 돌아오길 기다릴 뿐이어라.

이 같은 내용은 <蕩子賦>로부터 影響을 받은 전통적인 題材라고 말할 수 있겠다. 그러나 시대적 배경과 題材의 角度 그리고 立意의 중심 등과 같은 차이 때문에 동일한 내용을 표현했지만 그 基調와 風格은 분명한 차이가 있다.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蕩子賦>와 전통적으로 征夫思歸를 반영한 작품은 女性 인물을 중심으로, 그 주위의 외재적인 庭園이나 花草, 혹은 비단휘장과 빈 침대 등의 묘사에 치중했는데 그 목적은, 倡婦의 애절한 그리움과 깊은 슬픔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었기에, 표현한 문자의 風格은 輕艷柔靡한 습성을 피하기 어려웠다. 그러나 낙빈왕의 <蕩子從軍賦>는 男性 인물이 中心이다. 倡婦는 蕩子 생각 속의 倡婦로, 텅 빈 규방 속의 슬픔과 수만리 떨어져 있는 낭군을 그리워하는 마음의 묘사는, 蕩子의 고향을 떠나 변방에서 겪는 고통과 평화에 대한 갈망, 그리고 빨리 전쟁이 끝나서 가족과 함께하고 싶은 탕자의 복잡한 심리 등을 두드러지게 하고 있다. 이 때문에 “文託艷冶而義協風騷”라는 陳熙晉의 평가처럼 비장하고 호방한 색채를 드러내었다.

<蕩子從軍賦>와 <蕩子賦>는 언어의 형식에서 분명한 차이가 있다.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차이점은 5言과 7言의 詩句를 대량으로 사용하여 詩

賦 합류의 趨勢를 반영한 점이다. 이것에 대하여 許東海는 《庾信生平及其賦之研究》에서 다음과 같이 분석하였다.

庾信의 <蕩子賦>는 首尾 2단락에서 전부 7언과 5언체를 사용한 외에 중간 重要부분은 대체로 여전히 4언구 위주이고, 다만 2구의 5언과 4구의 7언을 사용했을 뿐이다. 駱賓王의 <蕩子從軍賦>에 이르러서는 全篇 54구중에서 다만 2구의 4자구와 10구의 6자구가 있을 뿐이고, 첫 단락도 重要한 한 단락으로 18구의 7언, 6구의 5언이 있다. 그 사이에 사용한 分量의 懸격한 차이를 뚜렷하게 볼 수 있다.(庾信<蕩子賦>, 除了首尾二段, 全用七言·五言體外, 中間主要部分大體仍以四字句爲主, 只用了二句五言, 四句七言. 而到了駱賓王的<蕩子從軍賦>中, 全篇五十四句之中, 却只有兩句四字句, 十句六字句, 而且第一大段, 也是主要的一段, 有十八句七言, 六句五言. 其間使用分量之懸殊, 歷歷可見.)¹⁸⁾

여기에서 좀 더 보충한다면, 賦중의 7字句는 對偶의 正교함에 注意를 기울였다.

“胡兵十萬起妖氛, 漢騎三千掃陣雲.”

“隱隱地中鳴戰鼓, 迢迢天上出將軍.”

“邊城暖氣從來少, 關塞寒雲本自多.”

“戈文耿耿懸落星, 馬足駸駸擁飛電.”

“鳳凰樓上罷吹簫, 鸚鵡杯中休勸酒.”

이 중에는 數字對(十萬·三千), 疊字對(隱隱·迢迢; 耿耿·駸駸), 動賓詞組對(懸落星·擁飛電) 등을 살필 수 있다. 上下聯이 모두 協韻하였고, 또한 4句마다 換韻하였다. 이것은 바로 賦와 詩의 境界를 허문 것으로 7言 歌行體의 特征을 지니고 있다. 이 때문에 明 李夢陽이 이것을 약간 수정하니 長篇 7言 歌行인 <蕩子從軍行>가 되었다.¹⁹⁾ 사실, 聞一多가 <唐詩

18) 주 13)과 같음.

19) 鈴木虎雄, 《賦史大要》, 143쪽 참조.

雜論·四傑>에서 “노조린과 낙빈왕의 가행체는 鋪張揚厲의 賦作法으로 악부의 신곡을 팽창시켰다.(盧·駱的歌行, 是用鋪張揚厲的賦法膨脹了的樂府新曲)” “그들의 노랫소리는 대문을 활짝 열어젖히는 박자가 필요했기에, 그들은 반드시 부로써 시를 지어야만 했다.(他們的歌聲需要大開大闔的節奏, 他們必需以賦爲詩)”²⁰⁾라고 말한 것처럼, 駱賓王은 詩로써 賦를 지었을 뿐만 아니라 賦로써 詩를 짓기도 하였다. 일찍이 沈德潛은 낙빈왕의 <帝京篇>에 대하여 《唐詩別裁集》에서 다음과 같이 평하였다.

<帝京篇>을 지은 것은 당연히 수사가 화려하고 형식이 장엄하며 군주의 공덕을 敷陳한 것이다. 이는 자신이 불우했기 때문에 풀어낸 것이다. 고로 시작은 성하였지만 쇠잔함으로 끝을 맺었다. 처음에는 형세의 웅대함과 궁궐의 장엄함을 서술했고, 다음에는 왕후 귀척과 游俠 倡家들의 지나친 사치스러움을 서술하였다. 「古來」 이후에는 세도의 변천을 개탄하였고, 「已矣哉」 이하는 자신의 순탄치 못함을 슬퍼하였다. 이 작품은 시의 규범적인 것은 아니다. (作<帝京篇>, 自應冠冕堂皇, 敷陳主德. 此因己之不遇而言, 故始盛而以衰頡終也. 首敘形勢之雄, 宮闕之壯; 次述王侯貴戚游俠倡家之奢侈無度. 至古來以下, 慨世道之變遷. 已矣哉以下, 傷一己之湮滯. 此非詩之正聲也.)²¹⁾

바로 이제까지의 전통적인 應制詩의 유형을 타파한 것으로, 작품 속에 대량으로 賦의 鋪陳과 夸飾의 筆法을 운용하였다. 이같은 표현기법은 陳情이나 言志의 賦 작품과 동일한 것이다. 그가 出獄한 後에 지은 <疇昔篇>도 역시 그 같은 특색을 갖고 있다. 시와 賦의 경계를 타파하여 詩로써 賦를 짓고 賦로써 詩를 짓는 것과 같은 이러한 駱賓王(당연히 王勃·楊炯·盧照鄰를 포함함)의 새로운 시도는 六朝 이후 柔弱한 賦風과 詩風에 대하여 충격을 주게 됨으로써, 唐賦와 唐詩가 새로운 국면을 개척하는데 중요한 공헌을 하였다.

20) 《聞一多全集》 卷三, 28쪽.

21) 沈德潛, 《唐詩別裁集》, 150쪽.

2. 억울함의 표현: “蟬”과 “螢”

唐 高宗 儀鳳3年(678)에 駱賓王은 長安 主簿에서 侍御史로 승진하였다. 이때가 그의 관직생활 중에서 가장 순조로운 시기였는데 뜻밖의 재앙을 만나 감옥에 갇히는 신세가 되었다. 낙빈왕의 투옥 원인에 대한 史書의 기록들은 모두 모호하다. 《舊唐書》本傳에는: “뇌물을 받아서 임해승으로 좌천되었다.(坐贓左遷臨海丞)”라고 되어 있고, 《新唐書》本傳에는: “무후 때에 여러 차례 상서를 올려 자신의 견해를 펼쳐서 임해승으로 쫓겨났다.(武后時, 數上疏言事, 下除臨海丞)”라고 기록 되어있다. 明 때에 胡應麟이 <補唐書駱侍御傳>을 지은 뒤에야 그의 투옥 원인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알게 되었다.

때에 고종이 나약하여 군주답지 못하자, 후에 무후가 나라를 전횡하였다. 낙빈왕은 당의 정권이 점점 무씨의 수중으로 넘어가는 것을 보고 여러 차례 상서를 올려 천하의 대계를 주장하였다. 후에 무후가 노하여 법으로 죄를 뒤집어 씌워서 감옥에 가두었다. (時高宗孱不君, 後壘擅國, 賓王親唐運且密移, 數上書言天下大計. 後壘怒, 誣以法, 逮繫獄中.)²²⁾

이는 강직하고 도도한 駱賓王에게는 대단히 심각한 打擊이다. 그는 獄中에서 비분한 마음으로 여러 편의 詩文을 창작하여 억울함을 호소하였다. 그 중에 後人에게 가장 널리 傳誦되는 것은 五言律詩 <在獄詠蟬>와 <螢火賦>이다. 이 2편은 모두 낙빈왕 자신을 자연계의 작은 벌레에 비유하여 억울한 마음과 고결한 품성을 드러낸 작품이다. 먼저 <在獄詠蟬>을 보면 모두 8句로 다음과 같다.

西陸蟬聲唱, 감옥 밖에서 들려오는 처량한 가을 매미의 울음소리에,
南冠客思侵. 감옥에 갇힌 죄인의 억울하고 분한 마음 속 깊숙이 파고드네.

22) 陳熙晉箋注, 위의 책 383쪽, 附錄.

那堪玄鬢影, 어찌 견딜 수 있으리, 이렇게 끊임없는 가을 매미 소리가
 來對白頭吟. 머리 센 이 사람에게 구슬픈 노래인양 들려오는 것을.
 露重飛難進, 짙은 찬 이슬에 날개 젖어 날아가기 힘들고,
 風多響易沉. 강한 서쪽 바람에 매미소리 눌러서 쉽게 가라앉네.
 無人信高潔, 아무도 너의 고결함을 알아주는 이 없으니
 誰爲表予心? 난 누구에게 이 내 순수한 마음 전하리오.

이 詩 앞부분에 225자의 긴 서문이 있어서, 자신이 감옥에 들어가게 된 내력과 시를 짓는 심경을 서술하고 있는데, 그 일단을 들어보면 다음과 같다.

…… 매일 저녁노을이 낮게 깔릴 때에, 감옥 밖의 가을매미 소리 띄엄 띄엄 들리니 깊은 탄식이 흘러나와 이전에 들었던 매미소리와 비교해보면 더욱 애절하고 처량한 것 같다. 혹시 사람의 마음이 이전과 달리 변한 것일까? 아니면 매미소리가 애절하고 처량함이 이전과 다른 것일까? 아! 매미의 울음소리가 사람의 속마음을 감동시키니, 매미의 품행이 이전 성현의 美德을 본받은 것이구나. 때문에 고결한 매미 그 자신은 군자 달인의 고상한 지조를 받은 것이다. 매미가 허물을 벗는 것은 羽化登仙의 신비스런 모습이다. 매미가 때에 맞게 나오는 것은 천지 음양 성쇠의 운수에 순응할 수 있어서이고, 매미가 철따라 허물을 벗는 것은 자연 만물의 숨겨진 기능의 조짐을 상세히 알 수 있어서이다. 매미는 눈을 크고 활짝 뜨기 때문에 세상의 어두움이 그 시야를 흐리게 하지 않는다. 매미는 날개를 스스로 가볍게 하고 있기 때문에 세속의 음란한 분위기에 그 진솔한 본성을 바꾸지 않는다. 매미는 높은 나무 꼭대기의 작은 바람을 읊조리고, 높은 가을의 떨어지는 이슬을 머금으며, 충성스러움을 다른 사람이 알까 두려워한다. …… (…… 每至夕照低陰, 秋蟬疏引, 發聲幽息, 有折嘗聞. 豈人心異於曩時, 將蟲聲悲乎前聽? 嗟乎! 聲以動容, 德以象賢. 高潔其身也, 稟君子達人之高行; 蛻其皮也, 有仙都羽毛之靈姿. 候時而來, 順陰陽之數; 應節爲變, 審藏用之機. 有目斯開, 不以道昏而昧其視; 有翼自薄, 不以俗厚而易其眞. 吟喬樹之微風, 飲高秋之墮露, 清畏人知. ……)

위의 서문에서 낙빈왕은 詩 창작의 命意와 主旨를 분명하게 밝히고 있다. 바로 저자 자신은 가을매미의 울음소리를 빌어서 억울하게 당한 마음을 기탁하여, 스스로의 고결하고 정직한 품격과 지조를 드러낸 것이다.²³⁾ 시 전체에 “怨”·“愁” 등과 같은 직접적인 글자를 한 字도 사용하지 않고, 가을매미를 통하여 자신이 밝히고자 하는 것을 드러내었다. 사물에 의탁하여 슬픔과 울분의 침통함을 완곡하게 比興으로 드러낸 것이다. 즉 狀物과 抒情을 하나로 잘 결합시켜 詠物詩의 含蓄美를 충분히 표현하였다.

다시 <螢火賦>를 보면, 이 작품은 <在獄詠蟬>과 마찬가지로 獄中에서 지은 것이고(하나는 여름, 하나는 가을), 동일한 命意와 主旨를 표현하였으며 창작의 동기도 비슷하다. 앞에서 보았듯이 詩의 서문에: “每至夕照低陰, 秋蟬疏引, 發聲幽息”라고 하여 마음에 감흥이 있어서 시로 드러난 것처럼, 賦의 서문에서도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이 때문에 한밤에 일어나 앉아 새벽이 되기까지 잠들지 못했다. 눈에 반딧불이 점점이 빛을 내는 것이 보이지만, 양동이를 뒤엎은 안에는 햇빛이 비치지 않는 것이 애석하구나. 무릇 同類라도 心志가 크게 다를 수 있는 것으로 孔子가 宋을 지남에 桓魋가 공자를 살해하려고 나무를 베어 낸 고사가 있다. 異質이라도 한소리로 서로 일치할 수 있는 것으로 蜀의 오동나무로 만든 물고기형의 북채가 만들어진 후에야 뭇 지역에서 나온 石鼓가 울려 그 소리가 10여리에 달했다는 전설이 있다. 만일 만물에 精靈이 있어서 하나로 감응할 수 있다면, 또 어찌 그것이 同類인지 아닌지 걱정할 필요가 있겠는가. 하물며 만물이 모두 시기에 따라서 변화하고, 기를 합쳐서 성장하는 것에 있어서겠는가. 설령 자연만물의 생성과 발육이 서로 다르지만, 그러나 떠도는 반딧불은 만물 중의 하나인 곤충이다. 반딧불이 가을의 절기에 순응하여 때를 놓치지 않는 것은 “信”의 미덕이고, 다른 것과 닮이 없는 것은 “仁”의 미덕이다. 반딧불이 밤이 되어도 몽매하지 않는 것은 “智”의 미덕이고, 해를 피하고 밝히지 않는 것은 “義”의 미덕이며, 위협에 처해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勇”의 미덕이다. 사물에 따라서 정취가 있어 감흥이 일어남이 있고, 情理로 인하여 사물에 기탁하는 감회

23) 任國緒, 위의 책, 238-239쪽 참조.

가 많아진다. 느낌이 있어 이 賦를 지으니 우선 스스로 위안을 삼고자할 따름이다. (……是用中宵而作, 達旦不暝. 觀茲流螢之自明, 哀此覆盆之難照. 夫類同而心異者, 龍蹲歸而宋樹伐. 質殊而聲合者, 魚形出而吳石鳴. 苟有會於情靈, 夫何患於異類. 況乘時而變, 含氣而生. 雖造化之萬殊, 亦昆蟲之一物. 應節不愆, 信也, 與物不競, 仁也. 逢昏不昧, 智也, 避日不明, 義也. 臨危不懼, 勇也. 事沿情而動興, 理因物而多懷. 感而賦之, 聊以自廣云爾.)

그러나 이 두 작품의 차이 또한 분명하다. 陸機<文賦>중에: “시는 情感을 토로한 것으로 언어는 정교하고 아름다워야 한다. 부는 사물의 형상을 묘사한 것으로 조리가 분명하고 언어는 명백해야 한다.(詩緣情而綺靡, 賦體物而瀏亮)” 李善이 그의 注에서: “綺靡, 精妙之言.”라고 하였다. 즉 詩는 편폭이 제한되어 사물에 대하여 전면적인 鋪述을 할 수 없고, 隱約과 含蓄에 치중해야만 하는데, <在獄詠蟬>이 바로 이와 같은 것이다; 또한 李善은 그의 注에서: “賦以陳事, 故曰體物. …… 瀏亮, 清明之稱也.”²⁴⁾라고 하였다. 즉 賦는 鋪陳하는 것으로 여러 層次로 나누어 다양한 角度로 서술 묘사하고 夸飾하여 직접 가슴 속에 품고 있는 것을 그대로 토해내야만 하는데, <螢火賦>가 바로 이와 같은 기법을 잘 나타내고 있다. 반딧불의 습성과 형태, 활동방식에 대한 묘사를 들어보면 다음과 같다.

乍滅乍興,	갑자기 없어졌다가는 갑자기 반짝이며,
或聚或散.	모였다가는 흩어지네.
居無定所,	사는 곳이 일정하게 정해진 곳 없이,
習無常翫.	날아다녀도 항상 소홀함이 없네.
曳影周流,	그림자를 끌고 곳곳을 돌아다니며,
飄光凌亂.	날리는 불빛은 반짝반짝 어지럽네.
泛艷乎池沼,	떠다니는 불빛은 연못에 밝게 비치고,
徘徊乎林岸.	작은 몸 이리저리 숲가를 날아다니네.
狀火井之沈燧,	소금 캐낸 구덩이에 붙이는 깊은 불씨 같고,
似明珠之出漢.	明珠가 漢皐에서 나온 것 같네.

24) 李善注, 《文選》 卷17, 241쪽.

值衝颯而不烈, 맹렬한 질풍에 맞부딪쳐도 불빛 식지 않고,
逢淫雨而逾煥. 오랜 비를 만나도 불빛 더욱 밝히네.
照灼兮若湛慮之夜飛, 빛남이여, 보검 湛慮가 번쩍이며 밤 허공을 가르는
것 같고
的矚兮像招搖之夕爛. 눈부심이여, 북두칠성이 밤하늘에 반짝이는 것 같네.
與庭燎而相炫, 반딧불과 정원 속의 횃불이 서로 엇갈려 비추고
然重陰於已昏. 저녁 칠후 같은 어둠 속에서 타올라 비추네.
共爝火而齊息, 반딧불과 횃불이 함께 식어 없어져
避太陽於始旦. 햇빛을 피해 새벽에 흩어져 버리네.

자세히 살펴보면 다방면으로 鋪述하고 층층이 排比하였으며, 夸飾·想像·用典 등의 표현기법으로 반복하여 형용하였다. 확실히 劉勰이 《文心雕龍·詮賦》에서 “사물의 형상을 묘사하고 용모를 그려내는데 문체가 풍부하여 조각한 것이나 그림을 그린 것 같다.(寫物圖貌, 蔚似雕畫)”²⁵⁾라고 말한 것과 같이 전형적인 賦體의 筆法이다. 물론 駱賓王이 그려낸 반딧불에 대한 묘사는 “爲文而造情”한 것이 아니며, 한가한 심정과 느낌을 抒發하거나 혹은 반딧불의 德行을 제시하기 위한 것도 아니다. 따라서 賦의 中心은 사물에 사람을 비유하는 것으로 반딧불과 身世의 感慨를 서로 대조하고 융합하여 묘사하였다.

彼翺飛之弱質, 저 점점이 반딧불 자그마한 몸은 허약해도,
尙矯翼而凌空. 그래도 날개를 치켜들고 공중으로 자유롭게 날아오르네.
何微生之多躓, 어찌 내 운명은 고르지 못하고 고난이 많은지,
獨宛頸以觸籠. 홀로 억울하게 죄를 뒤집어쓰고 감옥에 갇히게 되었네.
異璧光之照廡, 그 반딧불의 빛은 그저 행랑만을 비추는 璧玉의 빛이 아니고,
同劍影之埋豐. 豐城에 묻혀 있던 북두성과 견우성에 비치는 보검의 빛과 같네.
覲道迷而可復, 원컨대 길을 잃었다 다시 돌아올 수 있기를,

25) 劉勰, 《文心調龍》 139쪽.

庶鑿幽而或通.	어둡고 먼 것이 서로 상통할 수 있기를 바라네.
覽年華而自照,	세월의 빛을 따다가 자신에게 비추는데,
顧形影以相弔.	자신의 몸과 그림자만이 서로 위로함을 살피네.
感秋夕以殷憂,	가을 저녁 깊은 시름만이 가슴 가득하고,
懣宵行以熠耀.	밤에 날아다니는 반딧불 반짝임을 탄식하네.
熠耀飛兮絕復連,	반짝이며 날아다님이며, 끊어졌다가는 다시 이어지고,
殷憂積兮明自煎.	깊은 근심이 쌓임이며, 밝아서 홀로 마음 졸이네.
見流光之不息,	세월의 흐름이 멈추지 않는 것을 보니
愴驚魂之屢遷.	놀란 혼백이 자주 바뀜이 슬프도다.
如過隙兮已矣,	시간이 틈새를 지나가는 것 같음이며, 그렇게 없어져 버리고,
同奔電兮忽焉.	시간이 번개가 치는 것 같음이며, 그렇게 홀연히 사라져 버리네.
儻餘光之可照,	만일 남은 빛으로 아직 비출 수 있다면,
庶寒灰之重然.	아마도 식어버린 재로 하여금 다시 타게 할 수 있으리라.

공중을 자유롭게 날아다니는 아주 작은 반딧불에서 장속에 갇힌 새 신세인 자신을 연상하여 감옥 속에 갇힌 침통함을 선명하게 대비시켜 표현하였다. 마지막으로 식어버린 재를 다시 타게 할 수 있다고 말한 것은 억울한 누명을 벗고 다시 자유의 몸이 될 수 있기를 희망한 것이다. 李調元은 《賦話》에서 <螢火賦>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평하였다:

서경업이 패하자 낙빈왕은 망명을 하였는데 간 곳을 알지 못한다. 中宗 때에 그의 시문을 찾아 수집할 것을 명령하여 수백 편을 얻었다. 그 중에 <형화부>가 있는데 끝에 이르기를 “만일 남은 빛으로 아직 비출 수 있다면, 아마도 식어버린 재로 하여금 다시 타게 할 수 있으리라”고 하였는데, 역시 매우 슬픈 것이라고 할 수 있다. (敬業敗, 賓王亡命, 不知所之. 中宗時, 詔求其文, 得數百篇, 有《螢火賦》, 末聯云‘儻餘光之可照, 庶寒灰之重然’, 亦可哀矣.)²⁶⁾

26) 李調元, 《賦話》 212쪽.

사실 여기에서 드러난 情感은 <在獄詠蟬>의 마지막 부분인 “無人信高潔, 誰爲表予心”과 기본적으로는 동일하다. 그러나 賦文은 더욱 구체적이고 강렬하기 때문에 쉽게 공명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데 이는 隱約과 含蓄의 詩로 대체할 수 없는 것이다.

“螢火”는 본디 六朝 시기 賦작가들의 전통적인 題材였다. 晉의 傅咸과 潘岳은 모두 <螢火賦>가 있고, 또한 生卒年을 알 수 없는 蕭和에게도 <螢火賦>가 있다. 이 밖에도 梁의 簡文帝도 <詠螢>이라는 시 작품이 있다. 駱賓王之의 <螢火賦>는 자연스럽게 用語나 典故의 사용에서 그들의 영향을 받을 수 있었으나 傅咸과 潘岳은 士族官僚로 생활에 여유가 있어 그들이 창작한 詩文 대부분은 자신의 재주를 뽐내는 “爲文而造情”으로 심오한 내용이 결핍되어 있다. 먼저 傅咸의 <螢火賦>를 보면.

不以姿質之鄙薄兮, 자신의 몸뚱이 비루 천박하지 않음이며,
欲增輝乎太清. 하늘 속에 빛을 보태고 싶네.
雖無補於日月兮, 비록 해와 달의 빛에 도움을 줄 수는 없음이며,
期自照於陋形. 스스로 보잘 것 없는 형체에 비취지기를 바라네.
當朝陽而戢景兮, 아침 해가 떠오를 때 그림자를 숨겨버림이며,
必宵昧而是征. 반드시 밤늦은 어둠 속에서 날아다니네.
進不競於天光兮, 나아가 대낮 햇빛과 다투려 하지 않음이며,
退在晦而能明. 물러나 어둠 속에서 빛을 낼 수 있다네.
諒有似於賢臣兮, 필시 어떤 것은 현명한 신하와 비슷할 것임이며,
於疎外而盡誠. 먼 곳에서 귀양살이 할 때에 충성을 드러내네.
蓋物小而喻大兮, 반딧불 비록 작아도 큰 이치를 설명할 수 있음이며,
固作者之所旌. 이것이 바로 작자가 표창할 수 있는 까닭이네.
假乃光而爾熾兮, 그것의 빛과 타오름을 빌림이며,
庶有表乎忠貞. 아마도 충정을 표현할 수 있으리라.

이어서 潘岳의 <螢火賦>를 보면 다음과 같다.

奇姿燎朗, 기이한 자태 환하게 빛을 발하여,

在陰益榮, 어두운 구석에서 더욱 빛나네.
 猶賢哲之處世, 마치 賢哲이 세상에 있는 것 같이,
 時昏昧而獨用. 시대가 어두워도 홀로 그 몸 善하네.

이와 같이 이들의 작품은 儒道의 處世 철학을 역지로 비교하거나 혹은 표면적인 인생의 느낌과 탄식을 토로한 것이 주된 내용이다. 그러나 駱賓王은 그들과는 달리 寒微한 출신이고, 또한 “天生一副俠骨”(聞一多<唐詩雜論·宮體詩的自贖>)로서 市井의 博徒들과 어울리기도 하고 변방으로 從軍하여 고통을 겪기도 하며, 또한 나그네로 세상을 떠돌다가 감옥에 갇히기도 한 것처럼 일평생 복잡한 경력을 가지고 있었다. 이러한 생활 체험과 느낌으로부터 나온 진실성과 비참함은 다른 어떤 사람과 비교할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낙빈왕의 <螢火賦>는 동일한 題材의 작품 들 중에서 작가의 체험과 느낌이 우리나라의 가장 뛰어난 것이라 할 수 있겠다.

儀鳳 4年(679) 調露로 연호를 바꾸고 조정에서 대사면이 있었다. 낙빈왕도 가을에 석방되어 감옥에서 나오게 되었다. 그 다음해인 調露 2년에 臨海丞으로 임명되었다. 감옥에서 고통을 겪었던 낙빈왕은 벼슬에 연연하지 않게 되었던 듯 곧바로 임지로 가지 않고 먼저 義鳥로 돌아가 母親을 장사 지내려 하였다. 가는 도중에 永興縣을 지나게 되었는데 크게 가뭄이 들었을 때 永興의 主簿 宋思禮가 모친의 질병을 치료하기 위하여 하늘에 빌어서 清泉을 얻은 故事를 듣고서 “어려서 공정치 못한 징벌을 받아 일찍이 자애로운 어머니를 잃었다. 이에 그는 자애로운 어머니의 길러준 은혜를 언제나 그리워하고, 자애로운 어머니를 사모하는 고통은 더해만 간다.(幼丁偏罰, 早喪慈親. 永懷鞠育之恩, 長增思慕之痛)”(<靈泉頌>序)와 같은 마음에 情感이 일어 <靈泉頌>을 짓게 되었다. 馬積高는 그의 <<賦史>>에서 駱賓王을 언급할 때에 “그의 賦는 현재 <螢火賦>와 <蕩子從軍賦> 2편이 남아있다.(其賦今存<螢火賦>·<蕩子從軍賦>兩篇)”²⁷⁾라고 하여 <靈

27) 馬積高, 위의 책 266쪽.

泉頌>을 제외하고 있는데 이는 타당하지 못한 것이다. 淸의 陳熙晉이 그의 《駱臨海集箋注》에서 上述한 3篇을 卷六에 함께 수록한 것을 보면 <靈泉頌>를 賦로 본 것이 분명하다. 사실 일찍이 漢代에는 賦와 頌은 서로 通用된 것으로 司馬相如와 王褒의 <大人賦>와 <洞簫賦>를 <大人頌>과 <洞簫頌>라고 한 것이 그 예이다. 이 작품의 序文은 一百句에 달하며, 모두 駢文으로써 창작의 연유를 자세히 설명하였다. 본문은 24句로 전문을 들어보면 다음과 같다.

粵若稽古,	옛날의 사적을 따라서 고찰해보면,
厥初生人.	周 부족 최초의 백성으로 거슬러 올라갈 수 있네.
其誰不孝,	그 이후로 누구든 효를 하지 않는 이 없지만
獨我難倫.	오직 이 시기 宋思禮의 효행은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네.
義不悖道,	의로움은 효도에 어긋나지 않아야 하며,
仁不遺親.	인자로움은 부모에 효도함을 버려두고 해서는 안 된다네.
愛敬盡力,	부모를 사랑하고 공경함에 모든 힘을 기울이고,
孝弟通神.	집에서는 효도하고 밖에서는 공경하면 신에게 통할 수 있네.
顧我罔極,	부모의 은혜를 돌아보면 크기가 하늘과 같아서,
因心感至.	참된 마음에 따라서 교감하여 상응할 수 있어라.
冥契動天,	아무도 모르게 神과 합치하여 하늘을 감동시켜서
甘泉涌地.	甘泉이 대지 위로 솟아 나왔네.
泠泠無極,	청량한 샘물은 끝없이 흐르고,
烝烝不置.	팔팔 쏟아지는 많은 물은 마르지 않네.
曾是我思,	나는 이에 고상한 효행을 사모하니
永錫爾類.	이 효행이 조상의 보살핌을 얻게 되리라.
爰有勞人,	나는 본래 근심걱정 많은 사람으로
景行芳塵.	현자의 덕행을 내가 공경하고 따르다네.
事諧則感,	효도와 화목으로 천지신명을 감동시키고
道洽斯親.	의기투합하고 뜻이 맞아서 공경하고 친밀할 수 있었네.
孝爲禮主,	효도는 예의 주된 것으로 효를 다해야 예를 다할 수 있고,
名是實賓.	명칭은 실제의 종속된 것이로다.

倘斯文之不墜, 만일 효도하는 전통이 땅에 떨어지지 않으면,
 知盛德之有隣. 반드시 덕이 높은 사람은 외롭지 않고 그와 함께 할 것
 이네.

부모에 효도하는 전통과 그 효성스런 마음이 천지를 감동시킨 것을 묘사하였고, 마지막으로 효도하는 마음은 외롭지 않고 함께 할 사람이 많음을歌頌하였다. 이 작품의主旨는孝道를歌頌하여 중국의 전통적인 도덕규범을 표현한 것으로 특별히 언급할 만한新意는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형식은 주로《詩經》을 모방한 4言句를 위주로 하였는데, 이는荀子の 창작을 계승한 것으로 역시賦體의 또 다른 격식인 것이다.

IV. 結語

駱賓王은 그의 전설적인 일생을 통하여 단 3편의賦 작품을 남겼지만賦史에서의 지위는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는다. 본 고를 통해서 살펴본 낙빈왕賦의 성취와 가치는 다음과 같다.

첫째, 내용과題材 그리고 작품의境地와風格 측면에서 전통을 계승 발전시킴과 동시에 새로운 분야를 개척하였다. 그의〈蕩子從軍賦〉는 본디宮體 혹은艷情의인 범위 안에 속해있던題材인蕩子나倡婦를 활용하여 변방에서의征戰生活를 묘사한 작품으로 변화 발전시켜賦史에서 명실상부한邊塞賦의 효시가 되었다. 또한 그 영향은辭賦創作에서 뿐만 아니라詩壇에까지 미쳐서盛唐 시기邊塞詩의繁榮을 이루게 하였다. 또한〈螢火賦〉의詠物題材는 이전 작가들의 표현기법을 계승한 것이긴 하지만,〈螢火賦〉는 감옥 안이라는 특이한 환경에서 창작된 것이기에 작가만의 독특한 체험과 느낌이 그대로 녹아있다. 때문에 낙빈왕은 예술적인 구상에서“외부 변천하는 사물이 작가의情感을 움직이고 그 정감이 사물을 따라가는(物來動情, 情隨物遷)” 피동적인 것을, “작가의 정감이 외부 사물

로 이입되어 드러나면서, 이 정감으로 말미암아 외부 사물이 바뀌는(情往感物, 物因情變) 주동적인 것으로 변화시켜서²⁸⁾ 이전 작가들의 작품보다 더욱 처량한 분위기를 느낄 수 있게 하였다. 이것은 盧照鄰의 <窮魚賦>와도 많이 흡사한데, 이전의 六朝 文人들의 詠物賦는 이에 비교할 수 없는 것이다.

둘째, 賦의 體制와 句法 그리고 표현기법에서도 낙빈왕은 새로운 것을 창조하였다.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낙빈왕은 六朝 駢賦의 格式을 타파하고 詩賦 合流의 추세에 따랐다. 그리고 자신의 辭賦 창작 속에 詩의 작법을 비교적 알맞게 운용하였는데, 歌行의 특색을 갖추고 있는 <蕩子從軍賦>가 그 성공적인 좋은 예이다. <螢火賦>의 句法은 일정하지 않아서 駢文과 散文을 신축성 있고 자유스럽게 활용하였다. 아울러 그의 詩 <在獄詠蟬>과 서로 호응하여 사물에 자신의 감흥을 의탁하였다. 낙빈왕은 또한 賦의 작법을 詩歌 속에 운용하여 唐代 歌行體의 새로운 형식을 개척하여 후대의 李白, 杜甫, 白居易 등에게 이어지게 하였다. 낙빈왕은 唐賦의 웅장한 풍격을 진작시키고 唐詩의 새로운 경지를 개척한 측면에서 분명한 역할을 하였다. “당대 300년에 풍아의 시체가 흥성한 것은 初唐四傑이 앞에서 길을 열었기 때문이다.(唐三百年風雅之盛, 以四人者爲之前導也)”²⁹⁾라는 평가는 합당한 것이다. 그러나 후대에는 낙빈왕의 문장<討武曌檄>과 詩<在獄詠蟬>2편만이 비교적 중시되고 있고, 그의 賦는 충분한 평가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參考文獻>

陳熙晉箋注,《駱臨海集箋注》臺北: 世界書局, 民國 70年 再版

陳熙晉箋注,《駱臨海集箋注》香港: 中華書局, 1972年

28) 廖國棟, 《魏晉詠物賦研究》 6쪽 참조.

29) 주 20)과 같음.

- 《文選》，文選研究會編，1983年
《舊唐書》臺北：鼎文書局，民國70年 二版
《新唐書》臺北：鼎文書局，民國70年 二版
周振甫注，《文心調龍注釋》臺北：里仁書局，民國73年
沈德潛，《唐詩別裁集》上海：上海古籍出版社，1979年
李調元，《賦話》臺北：廣文書局 民國60年
游國恩，《中國文學史》香港：三聯書店，1986年
任國緒，《初唐四傑詩選》西安：陝西人民出版社，1992年
馬積高，《賦史》上海：上海古籍出版社，1987年
鈴木虎雄，《賦史大要》臺北：正中書局，民國 65年
聞一多，《聞一多全集》香港：三聯書店，1982年
許東海，《庾信生平及其賦之研究》臺北：文史哲出版社，民國 73年
廖國棟，《魏晉詠物賦研究》臺北：文史哲出版社，民國 79年
曹道衡，《漢魏六朝辭賦》上海：上海古籍出版社，1989年
于浴賢，《六朝賦述論》保定：河北大學出版社，1999年
黃水雲，《六朝駢賦研究》臺北：文津出版社，1999年
程章燦，《魏晉南北朝賦史》南京：江蘇古籍出版社，2001年

<中文提要>

駱賓王傳奇性的一生中，留下三篇賦，其作品的成就和價值如下：

第一，駱賓王的賦，在內容題材·作品的境界和風格上，具有承前啓後，而開拓了新的分野。他的〈蕩子從軍賦〉一篇中，把本來屬於宮體·艷情範圍內的題材——蕩子·倡婦，活用而變化發展為描寫邊塞征戰生活的作品，就開了賦史上名符其實的邊塞賦的先河。而且影響所及，不僅在於辭賦創作，還波及到唐代詩壇，而推動盛唐邊塞詩的繁榮。另外，詠物的〈螢火賦〉，題材上雖然前人已有所描寫過，但由於是創作於獄中這獨特的環境，而溶解着作者自己的獨特體

驗和感受。因此駱賓王在藝術構思上把前人被動之“物來動靜，情隨物遷”，變化為主動之“情往感物，物因情變”，而情調更為淒苦感人。在這一點上，與盧照鄰的〈窮魚賦〉頗相似，而為六朝文人之詠物賦所無法比擬的。

第二，賦的體制·句法和表現手法上亦頗多創新。如前所述，駱賓王打破了六朝駢賦的格式，跟從了詩賦合流的趨勢，而且較適當地把詩的作法運用於自己的辭賦創作上，具有歌行特色的〈蕩子從軍賦〉即為成功的例子。他的〈螢火賦〉句法多變，或駢或散，運用自如。且與〈在獄詠蟬〉詩相呼應，把自己的感慨托寄於事物。他又把賦的作法運用於詩歌中，開唐代歌行體的新形式，亦為後來的李白·杜甫·白居易等所承襲。總之，駱賓王在重振唐賦雄風，開啓唐詩境界方面，都是功不可沒，所謂“唐三百年風雅之盛，以四人者為之前導也！”然而，現在駱賓王的文章〈討武墨檄〉和其詩〈在獄詠蟬〉2篇受到較多重視，而他的賦却未能得到足夠的評價。

주제어 : 駱賓王, 初唐四傑, 唐賦, 蕩子從軍賦, 螢火賦, 靈泉頌